

우리나라 남해안지역 신석기시대 패총 출토 패류

안 덕 임

한서대학교 교양학부

=Abstract=

Molluscan Remains from the Neolithic Shell Middens in the Southern Coast, Korea

Deog-im Ahn

Hanseu University

Molluscs from the Neolithic shell middens (Sugari, Pukjeong, Tongsamdong, Sangnodaedo, Sandeung, Yondaedo, Songdo and Kupyongri) in the southern coast, Korea, consisted of marine, fresh-water and land molluscs. Among these, intertidal species were exploited most abundantly as food resources, indicating a high dependence of intertidal shellfish collecting activities. Especially oysters were the most abundant in these sites except Tongsamdong where mussels were predominant, indicating oysters were the most important food resources.

Land snails from the sites consisted of woodland and open land species. Woodland species were more abundant than openland species, suggesting that there was a woodland environment around the sites. Marine and land mollusc species from the sites are common in these regions today, indicating no large-scale environmental changes have occurred since these middens formation period.

서 론

패총이란 과거에 사람들이 주로 식료로서 채집한 조개를 소비한 다음 버린 껍데기가 쌓여서 생긴 조개더미를 말한다. 패총은 대부분 조개 껍질로 구성되나 그밖에 동·식물성 음식물 찌꺼기, 도구, 그릇 파편 등 패총을 대부분 조개 껍질로 구성되나 그밖에 동·식물성 음식물 찌꺼기, 도구, 그릇 파편 등 패총을 조성하였던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쓰레기를 포함하여 때때로 주머니, 분묘와 같은 유적도 발견된다.

패총은 고고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패총에 포함된 이러한 인공·자연유물을 통해서 당시의 생활상과 자연 환경의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토양이 강한 산성을 띠는 환경에서는 동물 뼈의 보존이 어려운데 비해서 패총 지역에서는 조개의 석회질 성분이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빗물과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알카리성의 탄산수소칼슘으로 변하여 석회암 지대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므로 커다란 포유동물 뼈는 물론 작은 물고기 뼈와 육지 달팽이 등도 잘 보존된다. 특히 패총의 주요한 구성 요소인 패류는 대부분 식료로서 또는 장신구 제작과 같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채집되거나 교역되어 이용된 다음 유적지에 버려진 것들이다. 그러므로 패

층에 남아 있는 인공·자연유물을 통해서 당시인들의 식생활과 식량 획득 기술 및 유적지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러한 환경과 관련하여 당시인의 사회·문화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식료로서 조개를 채취하기 시작한 것은 약 30만년 전의 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조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신석기시대인들은 해안가에 거주하면서 수산 자원을 활발하게 이용하였고 이 때부터 대규모 패총이 우리나라의 동북 해안, 서해안, 남해안 지역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는 남해안 지역의 신석기시대 패총 유적을 중심으로 신석기시대 남해안 지역의 패총을 조성하였던 패류를 파악한 다음 이와 관련하여 당시인의 조개 채집 행위와 패총 지역 주변의 자연 환경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룰 패총 유적은 김해 수가리(부산대학교 박물관, 1981), 북정패총(부산수산대학교 박물관, 1993), 부산 동삼동 패총(Sample, 1974), 통영군 상노대도(손보기, 1982), 산등(부산수산대학교 박물관, 1993), 연대도패총(국립진주박물관, 1993), 여천군 돌산읍 송도 패총(국립광주박물관, 1989, 1990), 사천군 구평리 패총(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3)이다. 물론 위의 패총 외에도 남해안 지역에서는 많은 패총이 보고되었으나 이들 패총에서는 패총을 구성하는 패류에 관한 보고가 없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남해안 신석기시대 패총 출토 패류

1. 종류

남해안 지방의 신석기시대 패총인 수가리, 북정, 동삼동, 상노대도, 산등, 연대도, 송도, 구평리 패총에서는 90여종의 해산패와 6종의 담수패 및 30여종의 육산패가 발견되어(표 1, 2) 해산패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패총의 패류 조성에 관한 보고가 전체 패총을 구성하는 패류의 조성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 조직적인 시료 채집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발견된 패류는 모두 이 지역에서 서식 가능한 것들로 당시 환경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개는 예로부터 식료, 화폐, 패제품의 원료, 수술적인 목적, 염료의 원료, 약재 등의 산업적인 목적 등에

널리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제, 1994). 남해안 신석기시대 패총에서 출토된 패류의 용도는 (1) 식용을 목적으로 채집된 것 (2) 장신구, 연모 등 패제품 제작을 목적으로 채집된 것 (3) 기타(의도적으로 채집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패총에 옮겨져 쌓인 것)로 크게 나누어 질 수 있을 것이다.

1) 식용 패류

식용 패류는 기본적으로 현재 식용되고 있는 패류로서 당시에 식료로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패류는 대부분 해산 패류이며 약 70여종이 해당된다(패총에서 출토된 조개가 식용 가능한 성패인 것으로 가정할 때의 수치임). 이 가운데 해산패에 있어서 권패류가 30여종 이매패류가 30여종을 차지하여 종의 빈도면에 있어서 권패류와 이매패류가 비슷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식용 패류 가운데 주요 포획 대상이 된 패류로는 굴류, 홍합, 꼬막, 반지락, 개조개, 백합, 비단가리비, 눈알고동, 밤고동, 전복류 소라, 큰뽕고동, 대수리, 피뽕고동 등으로 대상 유적의 과반수 이상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패류들이 많이 이용된 것은 이들이 대부분 중간대의 암초나 갯벌에서 간조시 쉽게 잡을 수 있는 종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며 당시인들의 미각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굴은 모든 패총을 구성하는 주요한 패류로 나타나서 신석기시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던 패류였음을 보여준다. 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2) 패제품 제작용 패류

남해안 신석기시대 패총에서는 조개 가공품이 출토되고 있어 당시인들의 조개 이용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패제품 제작의 원료로는 투박조개, 새꼬막, 대추고동, 백합류, 밤색무늬조개, 피조개, 비단조개 등이 많이 이용된다. 이들이 비교적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종들이어서 작기가 용이하지 않은 만큼 희귀성이 있고 또한 패각이 비교적 크고 두껍고 단단하여 팔찌와 같은 제품을 만들기 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남해안 신석기 패총 유적에서는 패제품 가운데 조개 팔찌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조개 팔찌는 대상 유적에서 모두 출토되었는데 원료로서는 투박조개, 새조개, 개조개, 비단조개, 밤색무늬조개, 큰뽕말이 이용되었고

우리나라 남해안지역 신석기시대 패총 출토 패류

표 1. 남해안 신석기시대 패총 출토 패류(해산패, 담수패)

학 명	한 국 명	수가리	상노대도	동삼동	송도	산등	북정	구평리	연대도
<i>Haliotis discus discus</i>	전복		0	0		0			0
<i>H. gigantea</i>	말전복		0	0					
<i>H. gurneri</i>				0					
<i>Cellana toreuma</i>	애기삿갓조개		0				0		
<i>C. grata grata</i>	진주배말		0						
<i>C. nigrolineata</i>	큰배말					0			
<i>Collisella dorsuosa</i>	두드럭배말		0						
<i>Chlorostoma argyrostoma</i>									
<i>lischkei</i>	밤고둥		0	0	0	0			
<i>C. xanthostigma</i>	명주고둥		0				0	0	
<i>Omphalius rusticus</i>	보말고둥		0					0	
<i>O. nigerrimus</i>	애기밤고둥								0
<i>O. pfeifferi</i>	바다방석고둥		0						
<i>Monodonta labia</i>	울타리고둥		0	0				0	
<i>Batillus cornutus</i>	소라		0	0	0	0	0	0	0
<i>Lunella coronata</i>									
<i>corensis</i>	눈알고둥	0	0	0	0 ¹			0	
<i>Pseudolionia asterisca</i>		0							
<i>P. pulckella</i>							0		
<i>Littorina brevicula</i>	총알고둥	0		0			0		
<i>Assiminea lutea</i>									
<i>japoinca</i>	기수우렁이								0
<i>Serpulorbis imbricatus</i>	큰뺨고둥		0	0	0	0	0	0	0
<i>Crepidula gravispinosa</i>	침배고둥		0	0		0			0
<i>Sabia conica</i>	기생고깔고둥		0	0					
<i>Cerithideopsisilla</i>									
<i>cinguiata</i>	비틀이고둥							0	
<i>Batillaria multiformis</i>	갯고둥	0						0	
<i>Difflaba picta</i>		0					0		
<i>Neverita didyma</i>	큰구슬우렁이		0		0			0	
<i>Monoplex australasiae</i>	수염고둥					0			
<i>Rapana venosa</i>	피빨고둥	0		0	0 ²		0	0	
<i>Ocenebra japonica</i>	어깨빨고둥	0	0	0					
<i>Ceratostoma rorifluum</i>	맷사리							0	0
<i>Reishia bronni</i>	두드럭고둥	0	0	0	0				
<i>R. clavigera</i>	대수리	0	0	0			0	0	
<i>Mitrella bicincta</i>	보리무룩		0	0		0	0		0
<i>M. tenuis</i>	날씬이보리무룩						0		

(계속)

안 덕 업

학 명	한 국 명	수 가 리	상 노 대 도	동 삼 동	송 도	산 등	북 정	구 평 리	연 대 도
<i>M. martensi</i>	고운띠부룩	0							
<i>Reticunassa festiva</i>	왕좁쌀부늬고둥	0							
<i>Neptunea arthritica cumingii</i>	갈색띠매물고둥		0		0				
<i>Japeuthria ferrea</i>	타래고둥			0					
<i>Siphonalia fuscolineata</i>	갈색고리돼지고둥				0 ³				
<i>Kelletia lischkei</i>	매끈이고둥		0						
<i>Fusinus perplexus perplexus</i>	긴뿔고둥			0					
<i>Hemifusus ternatauns</i>	털탑고둥		0					0	
<i>Oliva mustelina</i>	대추고둥			0					
<i>Inquisitor jeffreysi</i>	언챙이고둥					0			
<i>Striarca tenebrica</i>	빌로드복털조개	0	0				0		
<i>Nipponarca bistrigata</i>	두줄돌조개	0							
<i>Arca boucardi</i>	돌조개		0						
<i>Tegillarca granosa</i>	꼬막	0	0		0			0	
<i>Scapharca subcrenata</i>	새꼬막	0						0	
<i>S. broughtonii</i>	피조개			0				0	
<i>Barbatia virescens obtusoides</i>	복털조개	0		0				0	
<i>Glycymeris albolineata</i>	투박조개			0		0			0
<i>G. vestita</i>	밤색부늬조개	0						0	0
<i>Septifer virgatus</i>	굵은줄격판담치			0					
<i>Mytilus coruscus</i>	홍합	0	0	0		0	0	0	0
<i>Vignadula atrata</i>	왜홍합	0							
<i>Modiolus elongatus</i>	비단담치					0			
<i>Pinctada maxima</i>	백엽조개				0				
<i>Atrina pinnata japonica</i>	키조개		0						
<i>Pecten albicans</i>	국자가리비		0						
<i>Patinopecten yessoensis</i>	큰가리비			0					
<i>Chlamys farreri farreri</i>	비단가리비	0	0	0	0			0	
<i>Spondylus barbatus cruentus</i>	국화조개					0			
<i>Anomia chinensis</i>	잠쟁이	0							0
<i>Ostrea denselamellosa</i>	토굴		0	0	0	0		0	
<i>O. nippona</i>	일본굴			0					
<i>O. rivularis</i>				0					
<i>Crassostrea gigas</i>	굴	0	0	0	0	0	0	0	0
<i>C. ariakensis</i>	갯굴						0		

(계속)

우리나라 남해안지역 신석기시대 패총 출토 패류

학 명	한 국 명	수가리	상노대도	동삼동	송도	산등	북정	구평리	연대도
<i>Cardita leana</i>	주름방사목조개			0		0			0
<i>Trapezium liratum</i>	돌고부지	0					0		0
<i>Fulvia mutica</i>	새조개		0						
<i>Clinocardium cali-</i> <i>formiense</i>	굵은이랑새조개				0				
<i>Ruditapes philippinarum</i>	반지락	0	0	0	0			0	
<i>Saxidomus purpuratu</i>	개조개		0	0	0	0		0	
<i>Meretrix lusoria</i>	백합	0	0				0	0	
<i>M. meretrix</i>	조선백합			0					
<i>Gomphina veneriformis</i> <i>veneriformis</i>	대북		0						
<i>Cyclina sinensis</i>	가무락조개			0				0	
<i>Dosinorbis japonicus</i>	떡조개							0	
<i>Notochione jodoensis</i>	살조개			0	0				
<i>Mactra veneriformis</i>	동죽	0							
<i>Tresus keenae</i>	왕우럭조개		0						
<i>Mya arenaria oonogai</i>	우럭							0	
<i>Cavolinia tridentata</i> <i>Barnea manilensis</i>	돌(물)맛조개			0			0		
<i>Aspidopholas yoshimurai</i>	물맛조개류	0							
<i>Dentalium octangulatum</i>	여덟빨조개			0				0	
<i>Chipangopaludina</i> <i>japonica</i>	논우렁이						0		
<i>Semisulcospira gottschei</i>	곶채다슬기						0		
<i>Unio douglasiae</i>	말조개						0		
<i>Corbicula fluminea</i>	재첩						0		
<i>C. producta</i>	참재첩			0					
<i>C. sp.</i>	재첩류	0							

1. 울타리고둥으로 보고되었으나 보고서 사진(국립광주박물관 1990, p. 158 사진 1-3)에서 눈알고둥으로 확인되었다.
2. 가시고둥(*Bursa rana*)으로 보고되었으나(윗글, p. 159 사진 2-7) 피빨고둥으로 확인되었다.
3. 날개빨고둥(*Ocenebrellus aduncus*)으로 보고되었으나(윗글 p. 160 사진 3-9) 갈색고리돼지고둥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투박조개가 가장 많아 이 조개가 가장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삼동(투박조개 157, 피조개 3), 상노대도 (투박조개 20, 새꼬막 1, 개조개 3, 비단조개 1 등: 이 1987), 연대도(투박조개 또는 밤색무늬조개 13), 송도(새꼬막 또는 피조개 2, 미상 2), 산동(투박조개 3, 큰베말 1), 수가리(투박조개 13, 새꼬막 2), 구평리(투박조개+미상 13). 북정 패총 II지구 교란층에서도 부서진 팔찌가 보고되었는데 보고자는 꼬막이라 하고 있으나 방사륜의 숫자로 보아 피조개로 보인다.

한편 조개 팔찌는 당시의 조개 교역 관계를 말해 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예를 들면 내만 깊숙이 위치한 수가리 패총에서 외해의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투박조개로 만든 팔찌가 출토된 것은 당시에 이러한 장신구를 만들기 위해 이 조개가 교역 등을 통해 유적지에도달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는 보다 내륙지방에 위치한 신석기시대 유적인 충북 단양 도담리 금굴(손, 1984)과 단양 상서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조개 팔찌가 완성품으로 교역되었는 지, 원료로서 교역되어진 조개를 이용하여 유적지에서 가공되었는 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좀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밖에 상노대도에서는 말전복, 빌로오드복털조개, 비단조개 국자가리비 등으로 만든 패제품이 출토되었다(이, 1987).

3) 기타

세번째 부류에 속하는 것은 대부분 해산 및 육산 미소 패류이다. 전자는 식용으로 포획된 조개들과 함께 우연히 포획되어 패총에 퇴적되었을 것이며 후자는 패총 위나 주변에 서식하던 것들이 흘러 들어와 퇴적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돌고부지, 돌(물)맛조개, 기생고깔고둥, 침베고둥, 빌로드복털조개, 돌조개류, 잠쟁이, 주름방사륜조개, 뱀고둥류(큰 것은 식용 가능하다) 등은 굴과 같은 다른 조개의 껍질이나 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착생하는 종들이므로 식용을 목적으로 채집된 조개와 함께 패총 지대로 옮겨진 다음 이러한 조개 껍데기와 같이 버려졌을 것이다. 이러한 미소패 종의 검출을 통해서 식용 패류의 채집 방법 등이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부 해산 미소패 종 가운데 미륵류와 같은 종은 해조류 위에 사는 것들로서 이러한 종이 패총에서 출토되는 점은 신석기인들의 해조류 이용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자료의 증가를 기

대한다.

2. 패류채집활동

패총을 구성하는 패류 가운데 식용 패류로서 채집된 패류는 크게 해산패로서 조간대에서 서식하는 종과 조간대 이하의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종, 그리고 담수패로 나누어진다. 남해안 신석기시대 패총 가운데 비교적 많은 유적에서 출토되는 식용 패류 조간대에서 서식하는 종이 많다. 이는 당시 패류 채집 활동이 채집이 용이한 조간대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간대에서의 패류 채집은 간조시 쉽게 채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간조대에서의 패류 채집 활동은 적극적인 노력 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간대 패류 이외에 말전복, 가리비류, 갈색띠매물고둥, 갈색고리고둥, 긴빨고둥, 털타고둥, 새꼬막, 피조개, 투박조개, 밤색무늬조개 등의 패류는 조간대 이하의 깊은 바다에 주로 서식하는 종들이며 이러한 패류를 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인지 이러한 패류가 출토된 유적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출토량도 소량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특히 투박조개와 같은 패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팔찌와 같은 장신구 제작에 패각이 이용되는데 이는 이러한 패류를 쉽게 잡기 어려울 뿐더러 조개가 단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패총의 입지와 패류의 조성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삼동, 상노대도, 산동, 연대도, 송도와 같은 외해와 섬지역에 위치한 유적에서는 패총의 주체를 이루는 굴 이외에 홍합, 전복류, 눈알고둥, 밤고둥, 투박조개, 가리비류, 소라, 갈색띠매물고둥, 조선백합, 키조개, 긴빨고둥과 같은 외해~만입구의 조간대 ~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패류가 많아 외해계패총의 성격을 잘 반영한다. 잠수법에 의해 채집할 수 있는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패류가 포함되어 있는 점은 당시 조간대에서 패류 채집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일부 잠수법을 이용한 조개잡이도 깊은 바다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 점은 오랜 잠수에 의해 귀뼈의 변이(外耳道骨腫)가 일어난 신석기시대 인골이 옥지도(국립진주박물관, 1989)와 연대도(국립진주박물관, 1993)패총에서 출토된 사실로도 뒷받침될 것이다.

이에 반해 내만 지역의 수가리, 북정, 구평리 유적에서는 굴, 꼬막, 백합, 반지락, 피빨고등, 제첩과 같은 내만 조간대와 기수역 패류가 주류를 이루며 소수의 담수패가 발견되고 외해계 패류는 일부만 공반되며 패류의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여 내만계 패총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현재 바다와는 떨어져 있는 수가리, 북정 패총은 패총이 형성될 당시에는 내만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바닷물이 패총이 입지 하는 곳까지 미쳤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곽, 1991) 패총 주변의 조간대에서 주로 조개 채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외해와 섬지역의 패총에서는 외해~만입구에서 서식하는 패류가 주종을 이루는 데 비하여 내만에 위치하는 패총에서는 내만~기수역에 서식하는 패류가 주종을 이루어 패류 채집 활동이 패총에 위치한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해계, 내만계 패총 모두 굴이 패각층을 구성하는 주요한 패류로 알려져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예외적으로 동삼동 패총의 목도기~영도기 경우 홍합이 전체 패류의 41.6~76.6%를 차지하면서 11.7~27.9%를 차지하는 굴을 앞서고 있다. 패총 주변에 홍합이 자라기에 적합한 암초성 서식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점은 굴이 간조시 노출되기 때문에 쉽게 채집할 수 있는 육량도 많아 경제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굴은 오늘날에도 쉽게 채집할 수 있고 육량도 많아 경제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굴은 오늘날에도 맛이 좋은 패류로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에도 같은 이유에서 선호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남해안 지방 신석기시대 패총을 구성하는 패류인 굴은 농경이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에 식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특히 식량 자원이 부족한 겨울~봄철에 굴은 비상식량으로서 집중적으로 채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에도 이 시기의 굴이 맛이 좋으며 육량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서 주로 이 때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성장선 분석이나 산소 동위원소 분석 방법 등을 이용한 조개 채집의 계절성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며 패총에서 출토된 인골의 칼라겐분석을 통한 당시의 식생활 복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육지달팽이

육지달팽이는 습도, 온도, 먹이, 흙의 성질, 식물의 분포 등에 의해 그 서식 환경을 달리하기 때문에 유적에서 출토된 육지달팽이를 통하여 과거 유적지 주변의 환경에 복원할 수 있으며 당시인들의 생활상 및 주변 환경과의 관계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일례로 육지 달팽이 자료는 영국 신석기시대 농경민들과 그 가축들의 삼림 파괴 과정에 관한 증거(Evans, 1972)와 조개 채집 활동의 주기 및 집중도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港區教育委員會, 1981; An, 1991).

남해안 지역 신석기시대 패총 유적 가운데 수가리, 북정, 구평리, 연대도 패총만이 육지 달팽이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서 종합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유적에서는 1-2종만이 보고되었을 뿐이다. 이들 보고된 종도 번데기우렁이, 산우렁이, 동양달팽이와같이 눈에 띄기 쉬운 대형종에 속하는 것이다. 이점은 육지 달팽이 분석을 위한 시료 채집이나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이와 같이 육지 달팽이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나 현재까지 유적지에서 발견된 달팽이 종류와 그 서식 환경을 통하여 유적지 주변의 대략적인 환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남해안 신석기 유적에서는 모두 30여종의 육지 달팽이가 보고되었다(표 2). 이러한 종은 현재 이 지역에서 모두 서식하는 것들로 당시의 자연 환경이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들 달팽이의 서식 환경을 보면 대체로 삼림의 낙엽 밑과 같이 음지의 가려진 곳에 주로 서식하는 종과 평지의 풀밭과 같이 흙이 약간 건조하고 비교적 개방된 곳에 주로 서식하는 종들로 나뉘어진다. 전자에 속하는 것은 산우렁이, 번데기우렁이, 깨알달팽이류, 평담달팽이, 금강입술대고등, 밤달팽이류, 참입고랑고등, 배꼽달팽이, 동양달팽이 등이고 후자에 속하는 것은 제주나사산우렁이, 대고등류, 입술대고등류, 입술대고등아재비, 부산납직달팽이, 하와이호박달팽이, 포항호박달팽이아재비, 달팽이 등이다.

출토된 육지 달팽이의 종류와 서식 환경에서 볼 때 당시 유적지 주변에는 삼림과 풀밭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삼림이 약간 우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유적이 대부분 주위보다 높은 산지와 연결된 해안가의 얇은 구릉 위에 입지하고 있는 만큼 삼림의 조성되기에 좋은 여건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인들이 유적지 주변에 농경이나 주거 건물의 설립 등을 위해 삼림 파괴를 심하게 하지 않았음을 말

표 2. 남해안 신석기시대 패총 출토 육지달팽이

학 명	한 국 명	서식환경*	수가리	상노 대도	동삼동	송도	산동	북정	구평리	연대도
<i>Cyclophorus herklotsi</i>	산우렁이	A	o	o		o				
<i>Pupinella japonica</i>	번대기우렁이	A	o	o	o			o	o	o
<i>Doplommatina paxillus</i>	깨알달팽이	A	o						o	
<i>D. tyosenica</i>	참깨알달팽이	A		o			o	o		
<i>Palaina pusilla</i>	좌선깨알달팽이	A	o						o	
<i>Carychium pessimum</i>	양귀비고둥	A								o
<i>Strbilops coreana</i>	참입고랑고둥	A	o							
<i>Nesiohelix samarangae</i>	농양달팽이	A				o				
<i>Tornatellides boeningi</i>	?	A	o							
<i>Aegista vermis</i>	배꼽달팽이류	A						o	o	o
<i>Discus pauper</i>	납작평탑달팽이	A		o						
<i>Paganizaptyx miyanagai</i>	금강입술대고둥	A	o					o		
<i>Euphaedusa</i> sp.	입술대고둥류	A							o	o
<i>Parakaliella coreana</i>	참밤달팽이	A							o	o
<i>Discoconulus sinapidium</i>	아기밤달팽이	A	o					o	o	o
<i>Yamatochlamys lampra</i>	제주밤달팽이	A							o	o
<i>Parakaliella fusaniana</i>	부산참밤달팽이	A						o		
<i>Vallonia costata</i>	실주름달팽이	B								o
<i>Platyrphe quekpartensis</i>	제주애기산우렁이	B								o
<i>Spirostoma japonicum</i>	제주나사산우렁이	B		o						o
<i>Chamalycaeus cyclo-</i> <i>phoroides</i>	부산납작달팽이	B	o							
<i>Mirus coreanus</i>	입술대고둥아재비	B		o						
<i>Allopeas kyotoensis</i>	대고둥	B	o					o		o
<i>A. pyrgula</i>	각시대고둥	B	o					o	o	o
<i>Retinella radiatula</i> <i>radiata</i>	호박달팽이아재비	B							o	
<i>Hawaiiia minuscula</i>	하와이안호박달팽이	B	o					o	o	o
<i>Zonitoides yessoensis</i>	포항호박달팽이아재비	B	o							
<i>Acusta despecta</i> <i>sieboldiana</i>	달팽이 ウラツヤヘツコウ 미확인	B						o	o	
								o		o

*범례 A: 삼림의 나무 아래, 부식중인 낙엽 밑 등 습기가 있고 가려진 음식에 주로 서식.

B: 풀밭, 밭가, 정원 돌담 밑 등 흙이 약간 건조하고 개방된 장소에서 주로 서식.

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삼립성종이 초원성종보다 종 빈도에 있어서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세한 면을 보이지만 각 종별 출토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상세히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이들 패총 유적 가운데 대략적인 종별 출토량 분석이 이루어진 수가리, 북정, 구평리, 연대도 패총의 경우를 보면 전반적으로 삼립성종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삼립성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패총을 형성시켰던 사람들이 패총 주변 지역에 대하여 가옥 건립이나 농경지 개간 등에 따른 삼립 개척을 활발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안, 1993). 이러한 점은 당시인들이 패총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연중 거주한 것이 아니라 조개 채집 기간동안만 일시적으로 유적지 주변을 이용하였을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패총 유적과 관련하여 패총 주변 지역의 주거지, 분묘에 관한 유기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이러한 유적에서 출토된 인공 유물과 자연 유물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특히 생태적인 연구 및 성장선 분석 등을 통한 계절성 연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맺 음 말

이상에서 남해안 신석기시대 패총에서 출토된 패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패총을 구성하는 주요한 식용을 목적으로 채집된 해산패이며 주로 패총 주변의 바다에서 서식하는 패류 가운데 특히 조간대에서 서식하는 패류가 활발히 이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조간대에서의 패류 포획 활동이 간조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패총이 입지한 위치와 패총을 구성하는 패류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해와 섬지역에 위치하는 외해계 패총은 주로 외해-만입구에 서식하는 패류로 구성되는 데 비하여 내만지역에 위치하는 패총에서는 내만 조간대와 담수패가 주체를 이루었다. 그러나 외해계, 내만계 패총 모두에서(동삼동 패총 예외) 굴은 가장 출토량이 많은 패류로서 당시 가장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패총에서 출토된 육지 달팽이는 초원성 달팽이에 비하여 삼립성 달팽이의 출현 빈도가 높아 삼립성 환경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발견된 해산, 육산 패류가 현재 이 지역에서 서식 가능한 것들이어서 당시

의 자연 환경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자료의 부족으로 남해안 신석기시대 패총을 형성하였던 사람들의 생활상과 유적 주변의 환경을 복원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 자료 증가와 함께 좀 더 구체적인 추정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향후 패총 발굴시에 패류 분석을 위한 시료의 채집과 이에 따른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곽종철 (1991) 낙동강하구 김해지역의 환경과 어로문화. 가야문화연구 2: 59~86.
- 국립광주박물관 (1989) 돌산송도(Ⅰ).
- 국립광주박물관 (1990) 돌산송도(Ⅱ).
- 권오길, 박갑만, 이준상 (1993) 원색한국패류도감, 아카데미서적.
-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3) 사천 구평리유적.
- 부산대학교박물관 (1981) 김해수가리패총.
- 부산수산대학교박물관 (1989) 산등패총.
- 부산수산대학교박물관 (1993) 북정패총.
- 손보기 (1982) 상노대도의 선사시대 살림.
- 손보기 (1984) 단양 도담리지구 유적발굴조사보고.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 종합보고서
- 안덕임 (1993) 신석기시대 패총 출토 육지달팽이-남해안 지방 패총자료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물관기요, 9: 69-83.
- 이향숙 (1987) 한국선사시대 간 배·조가비 연모의 연구-상노대도·상시·점말용굴·금굴유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종길 (1994) 연체동물과 인간. 제12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고고학과 자연과학. pp. 49-68.
- 港區教育委員會 (1981) 伊皿子貝塚遺蹟.
- An, Deog-im (1991) A Study of the Konam-ri Shell Middens, Korea. 런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Evans, J. (1972) Land snails in archaeology. Seminar Press.
- Sample, L.L (1974) Tongsamdong: a Contribution to Korean Neolithic Culture History. Arctic Anthropology, 11(2): 1-125.